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문화정체성 연구*

- 1990년대 이주한 뉴커머들의 언어 사용과 종교 수용을 중심으로

최 아 영
(이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는 글

글로벌 경제 체제가 형성되고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주의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현재 국제이주는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가 조상들의 나라로 '귀환'하는 사례도 세계 각지에서 목도되고 있다.¹⁾ 이러한 민족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중 규모와 연속성면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A-A00020)

1) 1950년에서 1999년까지 400만의 독일인 후손들이 동유럽에서 독일로 이주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로 동유럽과 중동에 살던 헝가리인들과 터키인들이 본국으로 이주했으며, 식민지 통치시대에 식민지에 거주하던 유럽인들도 식민통치가 끝나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소련붕괴 이후 발트 3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 등 구소련공화국에 거주했던 러시아인들도 러시아로 귀환하고 있다.

Takeyuki, Tsuda, "Why Does Diaspora Return Home?",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를 걸쳐 이루어진 구소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일 것이다.

구소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의 역사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인 19세기 말 유럽과 제정러시아에 시온주의운동이 촉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련 정부의 해외이주 제한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유대인들은 반체제 운동과 이스라엘 출국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모색했지만, 소수만이 이스라엘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었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이주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의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²⁾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약 82만 명이 이스라엘로 입국하면서 이스라엘의 인구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무렵인 1990년 당시 5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이주자 집단이 단기간에 유입된 것이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은 해외에서 귀환한 전체 유대인의 약 40%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1990년대 구소련 유대인 귀환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소수였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 집단을 이스라엘 태생 토착민 다음으로 가장 큰 집단으로 변모시켰다.³⁾

구소련 유대인을 비롯해서 해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대규모 귀환이 가능했던 것은 1948년 건국 직후 시작된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에 기인한바 크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타민족과 타문화권 이주자를 폭넓게 수용하는 전형적인 이민 국가가 아니다. 건국 당시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Jewish State)"라는 정체성을 천명했고, 이스라엘에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대상을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Law of Return)에 의해 유대인,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 유대인의 배우자,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23.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2011, http://www.cbs.gov.il/reader/shnaton/temp1_shnaton_e.html?num_tab=st04_04&CYear=2011. (검색일 2014년 12월 2일)

3) http://www1.cbs.gov.il/hodaot2014n/21_14_106t2.pdf (검색일 2014년 12월 2일)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의 배우자로 제한하기 때문이다.⁴⁾ 유대인의 혈통임이 증명되거나, 유대교로 개종했다면 일반적인 이주자(immigrant)가 아닌 귀환자(repatriate)의 자격이 주어지고, 귀환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입은 정치적, 인구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에 대해 유대인의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끊임없는 충돌과 분쟁에 노출된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인구 구조를 보면 해외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 2008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아랍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 570만 명 중 약 28%인 162만 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부모세대가 이주자인 이주 2세대에 불과하다.⁵⁾

귀환 이주자의 수용 그리고 귀환에 따른 국적 부여의 유일한 조건이 종족성(ethnicity)일 만큼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혈통적 연대감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출생서류로 증명해야하는 종족성이 곧 유대인의 민족문화 정체성을 이루는 표식들, 즉 언어, 공유된 역사, 습관, 상징, 종교 등을 적절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귀환자들은 디아스포라에서 국민으로 돌아왔지만, 출신국과 새로운 조국간의 문화적 거리로 인해 또다시

4)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건국 2년 후인 1950년 7월 5일에 채택되었다. ‘귀환법’1조 1항은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귀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자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으로 규정된다. 1967년 6일전쟁의 결과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편입하면서 아랍인구가 급증하자 1970년 귀환대상을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의 비(比) 유대계 배우자, 유대인의 자녀, 유대인의 손자와 손녀,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 손녀의 배우자로 확대되었다. 1952년에 마련된 국적법에 따르면 귀환법에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은 즉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1971년 소련 유대인들의 귀환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향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2010, http://www1.cbs.gov.il/reader/shnaton/templ_shnaton_e.html?num_tab=st02_05&CYear=2010 (검색일 2015.2.2)

자신의 나라에서 디아스포라처럼 소수자로 살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리노이대학교의 타케유키 쓰다(Takeuki Tsuda)는 혈통적 유사성에 따른 민족적 소속감으로 시작된 귀환 이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귀환 이주자들은 이주과정을 통해 종족성을 형성하는 기준의 무게중심이 혈통에서 문화적 요소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⁶⁾

이렇듯 귀환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정체성 변용의 역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일 것이다. 1990년대 당시 이들의 이스라엘 이주를 두고 러시아인들은 '갈바사(러시아식 햄) 이주'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했을 정도로 민족적 동기보다는 소련의 극도로 악화된 경제상황이 이주의 주된 동인이었다. 이렇듯 1990년대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흡인(pull) 요소가 일차리나 삶의 수준 향상과 같은 경제적 성격을 띠었고, 또한 이주를 추동(push)하는 요소 중 뿌리를 찾고 조상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민족적 동기가 다른 지역 유대인 디아스포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 유대인들은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일련의 반시온주의 정책과 종교말살정책, 그리고 일상적인 반유대주의적 정서로 인해 혁명 이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사회를 지탱해오던 민족 정체성의 뿌리, 즉 허브리어, 유대교 등 유대문화와 전통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빠르게 동화된 세대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에 이스라엘로 귀환한 구소련 유대인들이 귀환 이주자들이 겪는 문화적 충돌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변용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과 그 이주 규모와 연속성으로 인해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민'이 되어가는 도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변용 양상을 언어사용과

6) Tsuda, Takeyuki, "Why Does Diaspora Return Home?",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 7.

종교 수용양상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문화 정체성 변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수용과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공존양태 그리고 유대교 수용 양상에 주목한 이유는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화적 거리는 바로 상이한 언어와 종교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수용 양태, 그리고 러시아어-히브리어 공존 현상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 토착민과 일상적 소통의 상상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직업, 자녀양육 등 사회통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적 실천의 범주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징, 문화적 상징의 주된 원천일 뿐 아니라 이주민의 법적 지위까지 정할 수 있는 유대교의 수용 양상을 통해 종교적 전통과 단절되었던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유대인 사회에 얼마나 깊게 통합 또는 동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할 것이며, 동시에 이것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속유대인들에게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II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구소련 유대인, 즉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이주자 사회가 형성된 과정과 각 이주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 이들의 히브리어 수용양상과 러시아어-히브리어 공존 양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구소련 유대인들의 유대교 개종식(기유르) 참여 현황과 이들이 이스라엘의 세속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러시아 유대인 공동체가 향후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는 도정에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국가안의 문화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이스라엘 구소련 유대인 공동체의 형성과정

구소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는 20세기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이주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최초로 당시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대부분 러시아제국 출신의 유대인들

이었다. 1880년대 유대인 거주한정지역이었던 “페일”(Pale of Settlement) 이 위치한 제국의 남부와 남서부지역에서 유대인을 향한 집단 폭력 및 학살 행위인 포그롬이 발생하자, 생존을 위해 유대인들은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했고 소수가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⁷⁾ 포그롬을 계기로 시온주의에 투신한 일부 러시아 유대인들은 “히بات 짜온”(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 “빌루”와 같은 시온주의 단체를 조직하여 최초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지를 건설한다.⁸⁾

이후 1차 대전과 혁명기 러시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그 규모면에서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구소련 유대인들의 이주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3차로 나눌 수 있다. 1차 이주는 1948년-1960년대 중반, 2차 이주는 1960년대 후반-1988년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3차 이주는 1989년부터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사회의 기층을 마련한 2차 이주(올드커머 세대)와 그리고 1989년부터 소련붕괴 후 1990년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이주인 3차 이주(뉴커머 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2차 이주: 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중후반

소련 시기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는 중동정세와 소련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집트를 지지했던 소련 정부는 그해 6월 10일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했다. 그리고 이미 출국비자를 신청했던 유대인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승리 이후 소련 유대인 사회는 두 개의 경향성

7) 최아영, 「러시아제국의 반유대주의: 1880년대 초 남부지역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호, 2012, 197쪽.

8) '빌루'는 “야곱의 족속아 일어나 함께 가자”(이사야 2장 5절) 의 히브리어 약어이며,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의 우크라이나 동부 하리코프 지역의 시온주의 유대인 대학생들의 모임이었다. 이들은 1882년 6월에 팔레스타인에 당도해 정착하려 했지만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가 다시 귀국했다.

을 보이게 된다. 소련 정부의 더욱 강경해진 반시온주의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은 적국의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심해지자, 유대인들의 동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1970년대-1980년대에 러시아 유대인 역사상 유대인과 비유대인간의 결혼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 하나의 흐름은 소련 정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강경한 정책을 펼치자 일부 소련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민족정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련 정부로부터 이스라엘로의 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들로 출국허가를 얻기 위해 투쟁하면서 히브리어 강습, 유대인 역사 학습 등 유대민족문화부흥을 위한 움직임을 이끌었다.⁹⁾

<표1>과 같이 1970년-1988년 사이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은 약 16만 5천명이다. 1980년대 미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진 것은 미국이 소련 유대인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자 소련 유대인들은 최종목적지를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이 있다.

| 이주연도 | 총 이주 인원 | 이주국 | |
|-----------|---------|---------|--------|
| | | 이스라엘 | 미국 |
| 1970-1978 | 174,000 | 132,000 | 42,000 |
| 1979-1988 | 117,000 | 33,000 | 84,000 |

<표1> 1970년~1988년 소련 유대인의 해외 이주¹⁰⁾

이 시기에는 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와 발트 3국, 서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들의 귀환 동기는 정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소련정권과 투쟁을 통해 시온주의 이상을 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조국’을 찾아 이주했기에 이스라엘 사회에 상대적

9) 이 시기 소련 유대인들의 출국운동에 대해서는 고가영,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 이주 자유를 위한 투쟁」, 『서양사론』, 제111호, 2011. 참조.

10) Tolts M. “Demography of the Jews in the Former Soviet Union: Yesterday and Today”, Z. Gitelman, with M. Glants and M. I. Goldman. Bloomington (eds), *Jewish Life after the USSR*, 2003, p. 177.

으로 빠르게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이주자의 상당수가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등 당시 이스라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스라엘 사회로의 통합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소련 유대인은 수적으로 많지 않아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유대인인 세파라딤, 유럽 및 북미 유대인인 아슈케나짐 등 다른 지역 귀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모자이크 조각중 하나로 존재했다. 이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같은 시기 이주한 소련 유대인들과 함께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 공연을 하는 동호회 성격을 가지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소련 유대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언론, 기관, 정당 등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렇듯 1970년대-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소련 유대인 공동체는 1989년 시작된 구소련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2. 3차 이주 : 1989년-1990년대

주지하듯이 1980년대 초부터 1988년까지 소련을 떠난 유대인들은 거의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정부에서 소련 유대인들을 난민자격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소련 유대인들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러나 1989년 소련정부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이주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결과 미국으로 이주하는 소련 유대인의 수가 급증하자, 미국정부가 소련 유대인 입국자격을 가족 상봉 목적으로만 제한하면서 구소련 유대인의 이주 방향이 이스라엘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1990년과 1991년이였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과 1991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총 귀환자 중에서 구소련 출신이 약 90%에 달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구소련 유대인들의 3차 이주를 “대(大)알리야¹¹⁾”라고 부른다.

11) ‘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해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귀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 이주연도(년) |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 (명) | 총 귀환자 (명) |
|---------|-----------------|-----------|
| 1988 | 2283 | 13,034 |
| 1989 | 12,932 | 24,030 |
| 1990 | 185,227 | 199,516 |
| 1991 | 147,839 | 176,100 |

〈표2〉 1988년 - 1991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 수¹²⁾

이시기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향한 동기는 주로 소련체제 붕괴 전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이전에 행해졌던 이주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소련 체제에 반대하고, ‘유대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정치적, 민족적 동기로 인해 촉발되었다면, 1989년 이후 199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구소련 유대인 이주는 이스라엘이 유인하는 인력(引力)보다는 거주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삶이 내모는 척력(斥力)이 그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91년 소련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이후 “유대기구”(The Jewish Agency for Israel)와 같은 시온주의 단체가 구소련 전역에 지부를 개설하여 지역 유대인 공동체에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자 지원정책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장려한 것도 이 시기 이주가 이스라엘로 집중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구소련 유대인이 대규모 유입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기존의 이주자 흡수 정책 및 이주자 지원 및 관리 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 했다. 건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은 80여 개국에서 유입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이스라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동화정책을 실현했다. 실상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산(離散)의 역사는 이제는 없애고 지워야 할 아픔과 수치의 흔적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귀환자들이 들어온 디아스포라 문화의 산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이주자들의 이름과 성을 다시 유대식으로 개명하

12)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Immigration/immigration_by_country2.html
(검색일 2014년 12월 2일)

도록 권장했고, 귀환 직후 유대인들은 “올판”이라는 히브리어 학습센터에서 의무적으로 히브리어 학습을 했으며 시온주의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자의 출신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가 늘어나자 국가주도의 동화정책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디아스포라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기초로 한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구소련 유대인의 이주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걸쳐 구소련 지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즉 뉴커머의 이스라엘 사회 편입 과정은 이전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주의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이주자 중 비유대인과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의 비율이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들의 민족 및 문화 정체성이 약했고,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전의 이주자 지원 및 관리 시스템도 수정되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람은 연간 1만-2만 명 수준이었기에 정부의 중앙 관리식 귀환자 지원 제도가 가능했었다. 1990년대 이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사람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시 거주지로부터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히브리어 교육기관인 올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그리고 매년 이민부에 이들이 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모든 생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주민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귀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행정서비스의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생겨났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자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금 세트”(Absorption Basket)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6개월 동안 초기정착에 필요한 금액을 이주자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귀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 세트에는 가족 성원의 수에 따라 이주 후 첫 6개월에 들어가는 생활비, 최초 1년 동안의 주택 임대료, 6개월 치 교통비(올판 왕복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전에는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 지역도 국가가 정해주었지만, 1990년대 이후 이주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에 시작된 구소련 유대인의 이주는 1990년과 1991년에 정점에 이

른 후 점차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이다. 구소련 지역의 유대인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유대인 인구 감소, 구소련 지역 이주의 중심축인 러시아의 경제적 약진과 이스라엘 안보상황 악화 등 여러 요소가 이주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주자들이 이스라엘 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이전 이주자 20만 명에 1989년 이후 이주한 80여만 명이 더해지면서 현재 이스라엘 구소련 유대인 공동체는 이스라엘 출생 유대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III. 구소련 유대인들의 문화정체성 변용

문화심리학자 존 베리(J. Berry)는 이주자들이 수용국 사회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며, 또 수용사회의 문화와 어느 수준까지 상호작용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다른 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거나(분리), 자신의 원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으로 다른 문화그룹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전략(통합)을 택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른 문화집단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를 추구할 수 있으며(동화), 자신의 문화정체성도 지킬 수 없고 다른 문화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소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사회학자 호로비츠(T. Horowitz)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을 완벽한 동화, 게토화(Berry의 분리와 유사한 개념), 혼용(Berry의 통합과 유사한 개념),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초민족주의, 즉 국경을 넘어 같은 언어나 문화를 향유하는 글로벌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¹⁴⁾

13) Berry,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1), 1997, p. 9.

14) Дашевская И., "Отношени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к гиюру: опыт

이 장에서는 1989년대 이후 이스라엘에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 뉴커머들의 히브리어와 유대교 수용 양상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정체성이 어떤 형태로 변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러시아어와 히브리어의 병존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히브리어를 유일한 유대인들의 국어로 규정하고, 다양한 출신지에서 온 이주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히브리어를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다. 오랜 세월동안 성경의 언어로 남아있던 히브리어가 엘리에셀 벤 예후다에 의해서 현대 히브리어로 부활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히브리어는 '한 국가-한 민족-한 언어'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온주의적 배경에서 태어난 언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정도가 애국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도 직결되었다.¹⁵⁾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주한 소련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때만 해도 이들은 소수자였고 이주자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귀환 후 곧 이스라엘의 과학, 예술, 학술 분야로 진출했으므로 '주류사회'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구사가 더욱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주시기에 상관없이 구소련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유대문화권에 서 단절된 시기를 경험했다. 제정 러시아시기 유대인들의 90%는 동유럽 아슈케나짐의 언어인 이디시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는 유대율법과 경전에 사용되는 언어로 일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소비에트 시기 히브리어는 소련정권에 의해 유대교의 언어이자 시온주의라는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련 유대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유대문화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디시어, 히브리어,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유대 신문 및 잡지의 종류는 5개

"Маханаим", Моше Кенигштейн (под ред.),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2009, С. 134.

15) Низник, М.,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Израиле-попытка разрушить стереотипы",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иля*, М: 2007, С. 406.

에 달했다.¹⁶⁾ 그러나 소련체제 붕괴이후 발생한 이러한 유대민족부흥의 움직임 속에서도 구소련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 대한 무지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러시아 사회학연구소의 리브키나(Р. Рыбкина)가 2004년 모스크바 거주 유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히브리어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중 가장 많은 수가 "전혀 모른다"(66%), "아주 조금 안다"(20%)라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¹⁷⁾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주를 결정한 후 떠나기 전에 히브리어 학습을 시도한 후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스라엘 입국 후 울판이나 각 지역 공공기관의 이주자 지원센터가 개설한 히브리어 학습센터에서 기초를 배우게 된다.

앞의 장에서 설명했듯이 유대인 귀환자는 누구나 울판이라는 히브리어 학습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료로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유대기구"와 텔아비브 대학교가 구소련에서 귀환한 이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히브리어 구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1-10스케일로 분석했을 때 응답자들은 자신의 히브리어 회화 수준을 4.59, 신문광고나 거리 광고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4.66,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은 4.08로 평가했다.¹⁸⁾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히브리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직장, 학교와 같은 공적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가정, 여가와 같은 사적 영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⁹⁾

16) Majid Al Haji, *Immigration and ethnic formation in deeply divided society*, Brill, 2004. p. 73.

17) Рыбкина, Р., *Как живут евреи в Росси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еремен*, М: дом еврейской книги, 2005, С. 491.

18) Лисица, И., "Индекс интегр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йля, М:2007, С. 151.

19) 2001년에 실시된 1990년대 이후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그들의 비공식적 교제권(여가를 함께 보내고 필요한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은 동료 이주자들이었다. 약 45%만이 정기적으로 동료나 클라이언트로 이스라엘인을 만난다고 했다. 대다수 55%는 구소련 유대인들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이렇듯 1990년대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히브리어 수용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정부가 1970년대 이후 용광로 이론을 포기하면서, 다문화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또 1990년대 이후 구소련 지역에서 유대인 이주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해마다 히브리어에 서툰 러시아어권 유대인들이 새로이 유입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전환에 있어 구소련 유대인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과 차별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규모가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압도될 만큼 작지 않다는 사실과 소비에트 시기부터 형성된 언어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 커뮤니티는 이주시기, 출신지역, 출신지역별 이주자 규모, 이스라엘 거주 기간, 유대 정체성 면에서 상당히 비균질적이다. 이렇듯 모자이크 조각처럼 다양한 이들에게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소련 시기에 다같이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역사인식과 러시아어이다.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도 대부분 현지어가 아닌 러시아어로만 소통했다. 그리고 이들은 귀환 후에도 이전세대와는 달리 ‘히브리어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았다.²⁰⁾ 이로써 이

그들을 고객으로 맞는 분야에서 일했다. (판매 텔레마케팅 등)또는 이스라엘인들 면 상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과는 어떤 비공식적 관계도 불가능했다. 심지어 응답자중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도 친근할지 언정 이스라엘인은 사적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 친구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했다.

Remennick, L, "Former Soviet Jews in Their New/Old Homeland: Between Integration and Separatism,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16.

- 20) 90년대 이후 이스라엘 구소련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아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러시아 유대인들의 낮은 히브리어 구사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Алек Эпштейн. “Государство ев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этнолингвистическое многообразие израильских СМИ”, *Диаспоры*, № 3, 2006/ Нелли Элиас, “Гетто или мост? Влияни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МИ на интеграцию иммигрантов”,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иля, Москва, 2007/* Лариса Найдич, “Новая алия сохраняет русский”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 2, 2005/ Eliezer Ben-Rafael and

스라엘에는 1990년대부터 인구의 1/5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언어 수용에 따른 이주자들의 문화정체성의 변용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미디어 소비 양상이다. 즉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 소비에서 얼마나 주류 문화의 미디어 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이주자들의 문화정체성 변용의 정도와 양상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회로의 통합 정도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구소련에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자 이스라엘에서는 약 130개의 러시아어로 된 언론 매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 4개가 일간지였고, 60개의 주간지, 그리고 40개의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이 있었고, 20개의 신문과 잡지가 계간지였다. 1991년 5월 26일부터 이스라엘 국영라디오 방송인 “이스라엘의 소리” (Voice of Israel)가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레카(REKA)” 방송을 시작하면서 구소련 유대인들 사이에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의 방송사들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러시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채널인 OPT, PTP와 같은 방송도 송출했다. 2002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대인 사업가에 의해 러시아어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이스라엘 플러스”(Израиль плюс)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공중파 방송 9번 채널을 할당받았다. 이 방송은 현재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가장 즐겨 시청하는 러시아어로 송출되는 텔레비전 방송이다.

이스라엘의 러시아어 인터넷 미디어(NEWSru.co.il, MIGnews, Zman, Cursor, IzRus, Zahav, Israel Info)도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들이 정보를 얻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2011년 이스라엘의 여론조사단체가 실시하고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 3562명이 참여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이들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 러시아어 인터넷 사이트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러시아어 텔레비전 방송"(38%), "러시아어 블로그와 SNS"(28%)라고 답했다. 한편 히브리어 인터넷 매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0%, 히브리어 신문은 7%에 불과했

다.²¹⁾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러시아어 포털 "자하브(www.zahav.ru), "이스라엘 인포(www.israelinfo.ru)와 인터넷 뉴스 사이트 "뉴스루(www.newsru.co.il), "미그뉴스(www.mignews.ru)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중동 분쟁 등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한 보도와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아레쯔"(Ha-aretz), "이스라엘 하-욘(Israel ha-Yom)과 같은 히브리어 일간지의 1면 기사를 정리해주는 서비스와 이스라엘 국내 명승지를 소개해주는 코너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 예술 파트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중문화나 예술문화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러시아 유명 예술극장의 이스라엘 연극 공연 안내와 러시아 대중가수들의 콘서트 홍보가 주를 이루었다. 칼럼부분도 대부분 러시아나 구소련 지역의 유대인 명사나,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인사들의 글로 채워졌다. 또한 온라인 TV 채널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채널이 762개로 18개가 소개된 이스라엘 온라인 TV 채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많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가 경제 파트에 포함되지 않고, 한눈에 클릭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는 정착촌 건설 및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 이슈 일뿐 아니라 안보적 성격까지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구소련 이주자들을 비껴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러시아어 미디어는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다양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류사회로 이끄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은 정치, 경제와 같은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 즉 여행, 여가, 문화생활, 새로운 만남 등에는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주 1.5세대 또는 이주 2세대는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부모세대보다 히브리어를 빠르게 흡수한다. 학교에서 히브리어로 수

21) http://rulogia.co.il/opros_ru_4rulogia2011.pdf (검색일 2015. 1.30.)

업을 듣고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 또는 다른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러시아어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부모세대보다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스라엘 정부가 디아스포라 언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히브리어, 영어 다음으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언어로 규정했지만, 실상은 러시아어 교육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민2세들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교육부는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소련 지역에서 태어난 자로 한정하고 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구소련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새로 유입된 이주민 자녀들의 효율적인 교육과 러시아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스라엘 교육시스템에 러시아어로만 진행되는 교육 제도를 접목시켰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팻"이다. "모팻"은 이스라엘의 수학·물리 특목고 네트워크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현재 16000명의 학생들이 모팻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스라엘의 토착민 가정 출신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²³⁾

이와 같이 주류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소련 유대인들의 러시아어 지향성은 단지 러시아어가 그들이 히브리어보다 오래 사용한 익숙한 언어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다른 원인을 분석해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구소련 지역에서 이주한 유대인 중 45세 이상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²⁴⁾ 이들은 이주 직후 율판에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히브리어 교육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경

22) Низник, М.,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Израиле-попытка разрушить стереотипы",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иля*, М: Гешарим, 2007, С. 410.

23) Теодор Фридгут, "Влияние иммигрантов из СССР СНГ на израильск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иля*, Москва, 2007, С. 85.

24) CBS,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2010. http://www1.cbs.gov.il/reader/shnaton/empl_shnaton_e.html?num_tab=st02_24x&CYear=2010 (검색일 2015년. 1월 30일)

제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히브리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기에 같은 러시아어권 이주자들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년 또는 청년 세대보다 히브리어 습득 의지와 수용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주한 유대인 이주자들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의 대도시에 정착하는 것과는 달리 1990년대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지가 주로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의 약 80%는 러시아어 사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도시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²⁵⁾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주자들이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못해도 충분히 출신국의 언어로 생활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구소련 유대인들이 중소도시를 최초의 정착지로 결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정부가 구소련 유대인을 받아들이면서 전략적 발전 대상지로 지정한 북부 갈릴리와 남부 네게브 지역 등에 위치한 일부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여러 가지 주택 구입에 따른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브엘세바, 아스돗, 아쉬켈론과 북부의 카미엘 등은 1990년대 이후 구소련 출신 유대인들이 주로 정주하면서 발전한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연구자가 2013년 1월에 방문한 이스라엘 북서부에 위치한 믹달 하에멕市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간이다. 믹달 하에멕의 인구는 5만 명인데 이중 1/3이 1990년대 이후 이주한 러시아 유대인이며, 부시장도 1989년에 이주한 몰도바 출신 유대인이다. 시청 산하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는 이주민(주로 러시아계)들을 위한 히브리어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이주민 가정의 경조사를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이주민 센터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예를 들어 소련의 전승기념일 행사, 러시아 가수 초청 콘서트, 러시아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조직하면서 구소

25) *Immigratio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2001*.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http://www.cbs.gov.il/statistical/immigration_e.pdf 참조 (검색일 2015년 1월 30일)

런 유대인들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러시아어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으로 1990년대 이후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 중에 유대인-비(非)유대인간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의 비율이 뚜렷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1년-200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러시아 유대인 이주자 중에서 1/3은 유대인이 아니다.²⁶⁾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법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계 유대인과 유대인의 배우자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등 CIS 공화국 구성 민족들이다.²⁷⁾ 따라서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자발적 동기가 적고, 출신국에 대한 향수와 연계가 유대인들보다 강하기에 이들에게서 러시아어 지향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1990년대에 구소련 유대인들이 단기간에 이스라엘로 대거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 말기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소련붕괴와 체제 전환이라는 정치적 대 사건이 커다란 요소로 작용했지만, 1970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더 많은 유대인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로 유입하기 위해서 귀환자격을 확대하도록 귀환법을 개정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유대인 뿐 아니라 그의 비유대인 가족들도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상대적으로 민족간 결혼 가정이 많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소련 유대인들의 러시아어 지향성은 이들의 러시아문학을 비롯한 러시아문화에 대한 자긍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은 러시아문화를 유럽문화와 동일시하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중동의 문화로 평가하고 있다. 이주 이전 러시아유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

26) 이스라엘 내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구소련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한 이주자 중 1/3은 비유대인이라고 등록되어있고 2007년 현재 그들의 수는 31만 명이다. Арье Хаскин, "Иммигранты-неевреи в Израи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еврейской и израиль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Золото галута, духов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интеграция русский евреев в Израиле*, М: Гешарим, 2009. С. 101.

27) Моше кенигштейн, "Чужие среди своих? иммигранты-неевреи в Израилеб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иля *Черты социального портрета*, Мост культуры, 2007, С. 219.

주하는 인텔리겐치야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예술의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였다. 이주 후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술-문화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소련 출신 유대인 이주자들이 작은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에게서 느끼는 정신적인 위축감은 이주 이전에 살았던 광활한 공간이 가진 문화적 예술적 자산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형성된 문화에 대한 선호와 자긍심이 뚜렷하지만, 이것이 출신국에 대한 향수나 애정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애국적 정체성과는 별개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러시아어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Newsru.co.il"이 2013년 4월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독자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 “내 나라이기 때문에”(37.4%) “유대인들의 국가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36.5%), “가족, 친지들 때문에”(31%)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살아야하므로”(21%)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8.4%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84%가 이주 이전의 출신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꼽은 이유 중에서 “이스라엘인들의 낮은 문화수준”(21.8%)이라는 응답도 불확실한 미래(27.7%), 불안정한 국가 안보상황(25%)과 함께 상위권에 있었다.²⁸⁾

2. 유대교 수용 양상

약 2000년 동안 지속된 이산(離散)의 역사에서 유대교는 유대인을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정체성의 근간이었다. 이스라엘 건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은 종교인이 아닌 사회주의 성향의 시온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을 유대인의 국가로 천명했기 때문에 유

28) http://palm.newsru.co.il/info/bigpoll/index_patriot2013.html (검색일 2015년. 2월 2일)

대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 형태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속법인 귀환법도 유대 종교법인 할라카(הלכה)에 따라 유대인을 규정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귀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국경일의 상당부분도 성서에 기초한 유대 종교 절기이다. 또한 결혼, 이혼 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이슈는 유대교 랍비들로 이루어진 종교법원의 관할 하에 다루어진다. 또한 법에 따라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결혼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유대인은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²⁹⁾

그러나 구소련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삶과 상당부분 분리되어 있었기에 종교가 이들의 유대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 러시아 유대인들이 17-19세기 페일에서 고립되어 거주할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에 기초한 랍비 중심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유대인의 민족, 종교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유대인은 거주한정지역에서 벗어나 소련 전역 흩어져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유대인은 전통적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잃었고, 소련정부의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와 함께 소련 정부의 유대인에 대한 민족 정책도 유대민족과 종교의 분리에 영향을 주었다. 서유럽에서는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유대인을 정의하는 기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소련정권은 유대인을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규정했다. 즉 소련에서는 유대교와 전통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혈통으로 유대민족이 정의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 정권이 취한 반시온주의 정책과 이로 인해 생성된 반유대적 정서는 소련 유대인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타자에 의한 범주화는 구소련 유대인의 자기인식으로 내면화되었다.

1997-1998년 미시간대학교 기텔만(Zvi Gitelman)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29) 귀환자들이 이주 당시 기독교인임을 숨기거나 혹은 이스라엘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자 귀환자격 상실로 인해 국적이 취소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유대인의 종교가 유대교로 규정된다는 해도 이것이 곧 그가 종교적 계율과 전통을 잘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 사회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는 이러한 러시아 유대인들과 유대교간의 분리를 잘 보여준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에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공유하는 자”(77.5%),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는 자(69.5%)순으로 답했던 반면 “유대교의 기본 교리를 아는 자”(13.4%), “회당에 나가는 사람”(8.7%), “할례를 받은 사람”(12.2%),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8.5%)이라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종교적 실천에 두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 했다.³⁰⁾ 이러한 구소련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대한 태도는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를 수용한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다.

이렇듯 ‘비종교적인’ 구소련 유대인이 대규모로 ‘종교적인’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먼저 타자에 의해 정의되는 유대민족 정체성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은 출신지에서는 부계를 따랐지만, 이스라엘로 귀환 후에는 종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당수 부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1970년대 귀환법의 적용 대상을 유대인의 비유대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한 결과 1990-1994년 이주한 구소련 이주자중 20%-30%가 부계 유대인과 유대인의 비유대인 배우자였으며 이들은 모두 “비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되었다.³¹⁾

이와 함께 혈통과 주관적인 자기인식이 유대인을 정의하는 주된 기준이었던 구소련 유대인들은 이주 후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국민정체성과 민족 및 종교정체성이 거의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면서, 유대민족 정체성의 내용을 이루는 종교적 기표와 상징을 수용하는 과정을

30) Гительман, Ц., Чербяков, В., Шапиро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российских евреев, Диаспора. No. 1, 2001, С. 68-69.

31) Joppke, Christian and Rosenhek Zeev, "Contesting Ethnic Immigration: Germany and Israel Compared",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86.

겪게 된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국경일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성서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절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켜지며, 이러한 절기와 국경일은 구소련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유대력에 따라 기념된다. 예를 들어 유대력 1월인 티슈레이월(月)만 보아도 유대인의 새해인 나팔절(1,2일), 대속죄일(10일), 초막절(15일) 등이 국경일로 지켜지는데 모두 유대교와 구약성서와 관련한 종교적 절기이다. 이밖에도 부림절, 오순절, 유월절 모두 구소련 유대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축제이다. 또한 구소련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의 운행이 제한되고, 극장, 레스토랑, 카페와 같은 오락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일상의 규범을 체득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유대 문화적 상징과 유대교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정통파 유대교의 종교인(*haredi*)들은 이스라엘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할 뿐이지만, 정당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슈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유대종교법에 따라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주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면서 비유대인에게도 귀환자격을 주는 귀환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에 따른 공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³²⁾, 국가 종교기관이 결혼, 이혼, 장례 등 일상의 의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 관련 이슈는 종교법원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사망 이후 함께 매장될 수 없다. 법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유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개종의 의식인 ‘기유르’과정을 마쳐야 한다.³³⁾

32)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민족,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3) 기유르는 유대교 개종 의식으로 기유르 과정 중 개종 희망자는 유대교가 정한 613개의 율법을 수용해야 하며, 남자인 경우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아문 다음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며, 여자는 몸을 씻는 정결 의식만 행한다. 이미 할례를 받았을 경우는 피부를 찢어 피를 한방울 흘리는 의식을 행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8천명의 구소련유대인 이주자들이 기유르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는 전체 이스라엘 거주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1%도 되지 않으며, 기유르의 잠재적 대상자인 비유대인 이주자들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³⁴⁾ 흥미로운 것은 이주 이전에는 유대교 개종과 기유르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오히려 개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개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개종식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 뿐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정의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교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적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교의 종교적 실천, 즉 율법과 전통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유대교의 일부에 불과하며,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문명이며 문화라고 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소련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속유대인(*hiloni*)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 맞닿아 있다.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유대교가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는 '종교적인' 국가이지만, 그 종교성(*religiosity*)의 층위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단순히 종교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세속적인' 또는 '종교적인' 성향으로 양분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에 7500명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종교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스스로를 "세속적 유대인(43%)"이라고 밝혔고, 그 다음으로 "전통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음"(24%), "전통적이고 종교적임"(14%), "종교적임"(10%), "극정통파 종교인"(9%)의 순으로 답했다. 즉 67%가 스스로를 유대교와 분리시키고 있었다. 한편 "유대교의 전통과 절기를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지킨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지키지 않는 편"(31%), "정말 열심히 지킨다"(25%), "전혀 지키지 않는다"(6%)의 순이었다. 다시

34) Хаскин, Ариье, "Иммигранты-неевреи в Израиле",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Гешарим, 2009, С. 107.

말하자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4%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떤 방식이든 유대식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었다.³⁵⁾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에서 '세속적이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 곧 유대교에서 유래한 전통과 습관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들이 구약성서의 모세의 이집트 탈출에서 유래한 유월절 만찬(*Seder*)을 즐기고, 하누카에 촛불을 밝히고,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유대율법에 따른 음식(*kosher*)을 먹는 것이 유대인이기에 하는 행위일 뿐 이것이 종교행위, 유대교의 계율에 따른 종교적 실천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종교적 성향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속유대인(*hiloni*)들은 스스로를 유대교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으로 정의한다. '힐로니'라는 명칭도 19세기 초반에 유럽의 유대인 계몽운동인 하스칼라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찾는 자"라는 뜻으로 쓰였던 용어이다. 그렇다보니 세속 유대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하스칼라의 추종자, 즉 마스킬림들의 본고장이었던 유럽 출신의 아슈케나짐이다.

이스라엘의 세속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은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점이다.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국민이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화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세속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국민은 곧 유대인이며 유대인은 타자, 즉 아랍인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문화가 주변문화가 아닌 주류문화인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은 유대역사와 전통을 잘 모르고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고도 유대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정체성에서 종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바로 이점이 이스라엘의 세속 유대인들의 의식과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유대종교에 대한 인식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양상은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설문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스라엘에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즉 종교법원을 없애서

35) <http://www.cbs.gov.il/statistical/seker-chevrati-e124.pdf> (검색일 2014. 12. 10)

출생, 결혼, 사망 시 종교법을 따르지 않고, 모든 종교에게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38.8%이며, "앞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가 37%로 전체 응답자의 75.8%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대교의 독점적 지위와 국가가 종교성을 띠는 것에 반대했다.

이와 같이 유대교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를 원하는 구소련 유대인들의 세속국가로의 지향성은 이들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유대교의 독점적 지위와 극정통파 종교인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세속주의 정당인 쉬누이당을 대거 지지했다는 점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IV. 맺는 글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환자들의 나라이다. 따라서 이 ‘유대국가’는 태생적으로 다문화-다민족적인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사회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바로 1989년 이래 시작된 이른바 ‘제2의 엑소더스’라 불리는 러시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이주이다. 그 결과 구소련 유대인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가장 선명하고 커다란 조각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전 세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주자들을 이스라엘 국민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는 히브리어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주자들의 언어 전환을 감독하면서 단일한 ‘이스라엘 문화’를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구소련 지역에서 대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백만 명 규모의 이주자가 유입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구소련 유대인들은 처음이자 유일한 대규모 ‘비(非)히브리어 문화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구소련유대인 공동체는 주류문화의 향유자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서 단순한 '소수자'라 할 수도 없다.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들에게 있어 러시아어는 소수자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구소련 지역에서 운명을 같이했으나,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구소련 유대인 디아스포라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이들의 초국경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국제적' 언어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권 이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이주자들은 주류 문화로 편입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동화되기 위해 노력한다. 모방하고 싶고 편입되고 싶은 거대한 메인스트림인 '백인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소련 출신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는 히브리어를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이긴 하지만, '주류문화'인 이스라엘 문화가 구소련 유대인들을 유인하여 이들을 이스라엘 사회로 통합하고, 나아가 이들의 동화를 촉발할 만큼 내용과 영향력 면에서 아직은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베리의 문화변용이론에 따른 네 가지 양상, 즉 분리, 통합, 동화, 소외의 과정은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출신 지역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구소련 유대인의 언어 사용 및 전환과정에서 모두 목격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주류언어인 히브리어권 문화로의 통합과정은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

한편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종교적 수용과 관련한 문화정체성의 변용은 사뭇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한 측면에서 볼 때 구소련 이주자들의 대거 유입은 이스라엘 주류사회의 양 극단에 서로 다른 반향을 주고 있다. 유대교로 스스로의 유대성(Jewishness)을 정의하지 않는 세속적인 성향의 대다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와 비유대계 이주자들은 이주 후 유대교로의 개종을 통한 종교적 실천으로 종교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문화'로서, 라이프 스타일로서 유대 종교적 전통을 흡수하고 있다. 이로써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통과 종교인들의 반발과 우려를 촉발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세속 유대인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주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색채를 ‘중화’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로 인해 구소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한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있다. 그리고 동화는 1세대에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스라엘 사회로의 동화나 적극적인 통합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형성된 '러시아 거리'로 대변되는 구소련 유대인 문화권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고, 몇 세대에 걸쳐 유지될 수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소, 즉 구소련 유대인 귀환의 연속성과 규모,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앞으로 구소련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주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소수자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류 사회로 통합되고 동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손실'을 얼마나 같은 지역에서 새로이 유입된 뉴커머가 채울 것인가에 소수자 집단의 크기와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구소련 유대인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구소련 유대인 공동체가 가지는 위상도 변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다문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1970년대 이스라엘과 유럽, 미주의 이민 국가들이 취했던 다문화수용 정책은 911테러와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의 테러 이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랍인들로부터 정부가 유대인뿐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이스라엘로 귀환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시온주의를 포기하고, 중동평화를 위해 유대인과 아랍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시오니즘'이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가 다문화주의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이주자와 디아스포라 문화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떠다니는 가장 커다란 섬이 될 것인지 또는 이스라엘 사회로 깊숙하게 들어가 조화롭게 박혀진 퍼즐 조각이 될 지는 유대인의 이주를 추동하는 구소련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상황과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자 정책,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재하기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소련 유대인들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카슬 스티븐 · 밀러, 마크 J.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 스토커 피터, 『국제 이주』, 이소출판사, 2004.
- 새머스 마이클, 『이주』, 이영민의 역, 푸른길, 2013.
- 클리어 폴, 『엑소더스.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 김선영 역, 21세기북스, 2013.
- 최아영, 「러시아제국의 반유대주의: 1880년대 초 남부지역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호, 173-202. 2012.
- BERRY,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1), 1997.
- _____,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Ways towards Social Solidarity", *Papers on Social representations*, Vol. 20, 2011.
- BESWICK, Jane, "Diasporas and Language", *Diasporas: Concepts, intersections, identities*, Kim, Knott and Sean McLoughlin (eds.), Zed Books, 2010.
- BOYARIN, Daniel and BOYARIN, Jonathan, "Diaspora: Generation and the Ground of Jewish Identity", Jana Evans Braziel and Anita, Mannur (eds.), *Theorizing Diaspora*, Blackwell Publishing, 2003.
- GITELMAN, Zvi, "Jewish Identity and Secularism in Post-Soviet Russia and Ukraine", Zvi, Gitelman (ed.), *Religion or Ethnicity?: Jewish Identity in Evolu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 JOPPKE, Christian and ROSENHEK, Zeev, "Contesting Ethnic Immigration: Germany and Israel Compared",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 LIEBMAN, Charles S and YADGAR, Yaacov, "Secular Jewish Identity and the Condition of Secular Judaism in Israel", Zvi, Gitelman (ed.), *Religion or Ethnicity?: Jewish Identity in Evolu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 REMENNICK, Larissa, "Former Soviet Jews in Their New/Old Homeland: Between Integration and Separatism",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The Russian-Jewish diaspora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Diasporas: Concepts, intersections, Identities*, Kim, Knott and Sean McLoughlin (eds.), Zed Books, 2010.

- TSUDA, Takeyuki, "Why Does Diaspora Return Home?", Takeyuki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 VASQUEZ, Maniel, "Diasporas and Religion," Zvi, Gitelman (ed.), *Religion or Ethnicity?: Jewish Identity in Evolu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128-133. Mid-Year Summary of the Jewish Agency Activities in the FSU, January-May, 1999.
- ДАШЕВСКАЯ, И., "Отношени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к гиюру: опыт "Маханаим",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Гешарим, 2009.
- КЕНИГШТЕЙН, М., "Чужие среди своих? Иммигранты-неевреи в Израиле",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йля : черты социального портрета*, М: Гешарим, 2007.
- КОТЛЯР, Г., "Евре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ести ли будущее?",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Гешарим, 2009.
- Население и общество, 71,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Центра демографии и экологии человека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РАН, 2003.
- НИЗНИК, М., "Русский язык в Израиле: при смерти или все еще жив?",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Гешарим, 2009.
- _____, М.,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Израиле-попытка разрушить стереотипы",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йля*, М: Гешарим, 2007.
- ПОЛОНСКИЙ, П., "Русские евреи, иудаизм и демократия", *Золото галута*, М: Гешарим, 2009.
- РЫВКИНА, Р., *Как живут евреи в Росси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еремен*, М: дом еврейской книги, 2005.
- СОЛОДКИНА, М., "Формирование этниче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Русское лицо Израйля : черты социального портрета*, М: Гешарим, 2007.
- ФЕЛЬДМАН, Э., *"Русский" Израиль: между двумя полюсами*, М: Маркет ДС, 2003.
- 이스라엘 중앙 통계청 www.lcbs.gov.il
미그뉴스 www.mignews.com
뉴스루 www.newsru.co.il

이스라엘 인포 www.israelinfo.co.il

자하브 www.zahav.ru

❖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Identities of Jewish Immigrants from Former Soviet Union in Israel : Focused on the Language Use and Acceptance of Religion of the Newcomers who immigrated during the 1990s

Choi, A-Young

Since 1989 about one million Jews from Former Soviet Union have immigrated to Israel. Now Russian speaking Jews are the second largest ethnic groups after the Israeli Jews who were born in Israel.

Although FSU Jews have returned to their ethnic homeland, they continue to live as 'foreigners' due to a cultural distance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society, such as, lack of knowledge about Jewish tradition and religious practice and low level of Hebrew proficiency. Because of this reason FSU immigrants tend to continue remain strong ties with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such a relatively slow process of language shift of FSU Jewish immigrants, the language shift to Hebrew. Firstly, majority of FSU immigrants moved to Israel since the 1990s are older than 45. Secondly, their first residences in Israel are mostly located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where the proportion of Russian speaking immigrants is more than 30%. And finally they consider Russian culture is 'superior' to Israel's Levantine culture.

For many Jewish diasporic communities, Judaism was a dominant factor for self-consciousness, but because of Soviet regime, aimed to break all the religious institution including Jewish, Soviet Jewry was uprooted from their religious traditions. Besides about 30% of FSU immigrants are not defined as Jews by the Jewish religious law(Halakhah). And many of them are reluctant to convert to Judaism. FSU Jewish immigrant agree that Israel must be a Jewish state, but for them 'Jewish' does not include religious elements. FSU immigrants consider that religious affiliation of citizens of Israel should not affect their civic rights.

Key Words

이스라엘, 구소련 유대인, 이주, 문화정체성, 유대교

Israel, Jews in the former Soviet Union, immigration, cultural identity, Judaism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